

## 여호수아(15)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

### ■ 본문

수 11:16-23

### ■ 시작 찬송가

573장

### ■ 헌금 찬송가

455장(통 507장)

### ▶ 믿음의 순종

여호수아는 여리고부터 지금까지 모든 전쟁의 순간에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명령에도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2018.12.02. 주일찬양예배 중)

우리의 삶에는 산지와 평야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네피림과 아낙 족속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곧 이기는 사람이 되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수많은 산지와 평지를 정복하였습니다. 이 정복 전쟁의 중심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변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의 몸종 출신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는 자신의 부족함도 알고 있으며 처한 위치나 출신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탁월함을 가지게 됩니다.

### (1) 승리의 탁월함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이 멈추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휴전을 해서 끝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패배하여 항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과 수많은 광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지만 여리고의 싸움이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는 바로 순종함을 통해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함의 승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수 11:16-17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겅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처죽하였으며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승리의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일 5:3-4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 (2) 인내의 탁월함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 무려 7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에게 견디는 힘을 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견디는 힘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불평불만을 모두 참아내고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과 우상을 만드는 일에도 모세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모세를 보고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전쟁 속에서도 견뎌냈습니다.

수 11:18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자연스럽게 끊임없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불평을 듣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여호수아도 백성이 내뱉는 불평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견디고 인내하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의 탁월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순종의 탁월함

본문 21절을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성읍들을 진멸하고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수 11:21 그 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시 136:1-3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사람은 너무나 잘 변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같이 처음에는 순종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종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지도자로서 더 좋은 땅을 가지려는 욕심을 부릴 수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험난한 세상 속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 소망합니다.

수 11:23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 여호수아의 길

여호수아가 멸절한 가나안 족속 중에는 아낙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낙 사람은 거인 족속 네피림의 후예입니다. 과거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아낙 사람들을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낙 사람의 장대함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낙 족속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산지와 평야도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아낙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갖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 네피림 : ‘거인’, ‘용사’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거대한 종족(창 6:4)으로 가나안 원주민 아낙 자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신 1:28; 2:10; 수 11:21). 성경에서는 ‘장대한 자’, ‘용사’, ‘르바임’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표적 인물로는 출애굽 당시 바산 왕 욱신(3:11), 사울 당시 블레셋 장수 골리앗(삼상 17:4), 다윗을 대적하다 아비새에게 죽임당한 블레셋 장수 이스비브논(삼하 21:15-22) 등이 있다.

참고로 바산 왕 욱은 키가 아홉 규빗(약 4미터)이었다고 한다.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천사와 결합하여 태어난 사람과 신의 중간적 존재, 타락한 천사 등의 다양한 해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네피림을 상대하여 이기기 힘든 강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 오늘의 한마디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7.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위해서